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좁히는  
**완주로컬푸드**



완 주 군  
WANJUGUN



## Contents

### 완주군이 로컬푸드 전략을 선택한 이유

- 03 ... 완주군이 로컬푸드 전략을 선택한 이유
- 07 ... 차별화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세우다
- 09 ... 정책 슬로건 '150만원 월급받는 농부 3,000소농 만들기'

### 종합 밑그림을 그린다

- 10 ... 생산재편, 소농 조직화
- 11 ... 농민가공 활성화
- 13 ... 안전성 강화시스템
- 14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밥상,  
새로운 상생관계가 만들어지다
- 17 ... 생산과 소비간 쌍방 소통
- 19 ...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순환경제가 커지다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Tel. 063-290-2464 Fax. 063-290-0000 [www.wanju.go.kr](http://www.wanju.go.kr)

## “세계화 포로가 된 한국농업, 이젠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



시장개방 – 농업쇠퇴 – 농가인구 감소  
– 농촌사회 붕괴(악순환 반복, 심화)

## 완주군이 로컬푸드 전략을 선택한 이유

오늘 우리는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불확실성은 세 가지 지구위기에 온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석유위기와 식량위기로 대표되는 자원위기, 그리고 온난화에서 비롯된 기후변화 위기가 그것이다. 세 가지 지구 위기는 서로 연관되고, 융합되어 위기를 증폭시킨다. 배후에는 초국적 자본의 무한경쟁과 탐욕이 있다. 한국의 경제도 농업도, 작은 지방도시 완주군의 지역경제도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화급한 주제 중 하나는 농업과 식량의 문제다. 이는 곧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위기다. 근본 원인은 농업의 세계화에서 비롯되었다.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에 의해 주도되고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DDA(다자간무역협정)-UPOV(국제신제품종보호동맹) 등 국제무역질서를 등에 업은 '녹색혁명형 농업'과 '먹을거리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러온 결과다. 문제는 그 속성상 각국의 소농 유지, 소비자 밥상 안전, 종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 식문화 계승, 지구온난화 방지에 철저하게 역행하는 글로벌푸드시스템(세계식량체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있다.

치유의 힘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맞잡은 손에서 나온다. 일본의 지산지소·지산지공,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영국의 리얼푸드, 미국의 CSA(공동체지원농업) 등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해 보인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민사회의 자각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에서 출발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정책에까지 반영함으로써 낡은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어낼 수 있는 사회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은 이른바 '경제적 영토 확장 전략'이다. 이는 전 세계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로 현실화했다. 그 과정에 농업은 늘 희생양이 됐다. 한국 농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5년 37.6%에서 2004년 3.6%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서 8.1%로 줄어들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구조전환을 경험한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1980년대 중반 시장개방 이후 2012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2.6%에 불과하다.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5%가 채 안된다. 농가 평

총농가인구



남 · 여  
농가인구



총경지면적



논 · 밭  
면적



국가통계자료 발췌(2011. 12월기준)



균소득은 도시민의 59% 수준이다. 연 소득이 50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농가 수가 전체의 53.1%라는 점은 농촌 양극화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고령화지수는 이미 33%를 넘어섰다. 70%에 달하는 1ha미만의 소농들은 설자리를 잃었고, 지역농업, 지역사회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한편, 한국농업은 국가적으로 다수 소농의 토지를 소수의 손에 집중하여 '국제적 경쟁에 견딜 수 있는 근대적 기계화 농업을 확립하는 것', 즉 단일작목 중심의 규모화 농 육성이라는 농업구조개선에 몰두해 왔다. 1억 이상의 농부는 2.6%로 늘었지만 다수 가족소농, 고령농은 철저하게 정책적 소외 및 재촌탈농(在村脫農)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 참담한 결과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농가 65%' 양산이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심력이 커질수록 지역의 어려움과 고통도 비례하여 커진다. 모든 초점이 초국적 자본의 탐욕충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창출하여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자립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는 상호부조와 호혜경제에 기초한 로컬경제 자립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로컬푸드는 '경쟁시장'과는 근본 작동원리가 다른 '관계시장'의 특성을 갖는다. 경쟁 시장이 '상품성', '품질', '가격'에 기초해 철저한 경제효율성의 논리가 점철되는데 비해, '관계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과 '신뢰'로 유지된다. 로컬푸드는 단순한 먹거리 직거래를 넘어 지역성, 관계성, 안전성, 생태성, 복지성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치유력'을 내포한다.

로컬푸드는 그 본질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도농을 잇는 가장 치유력 높은 사회연대 경제모델이다. 농민과 시민들은 이미 신뢰·협동·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한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왜 한국의 조그만 산골에 사는 농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지역단위 공동체 힘에 기초한 대안 먹거리 질서, 도농간의 지역순환경제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 지역활성화 정책

### ● 마을회사육성

- 10년~20년 뒤에도 유지 가능한 농촌마을 100개소 육성
- 단계적 육성, 다양한 마을 자원의 상품화, 도농교류 거점

###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비즈니스모델 발굴, 육성
-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가 융합된 주민조직의 육성

### ● 로컬푸드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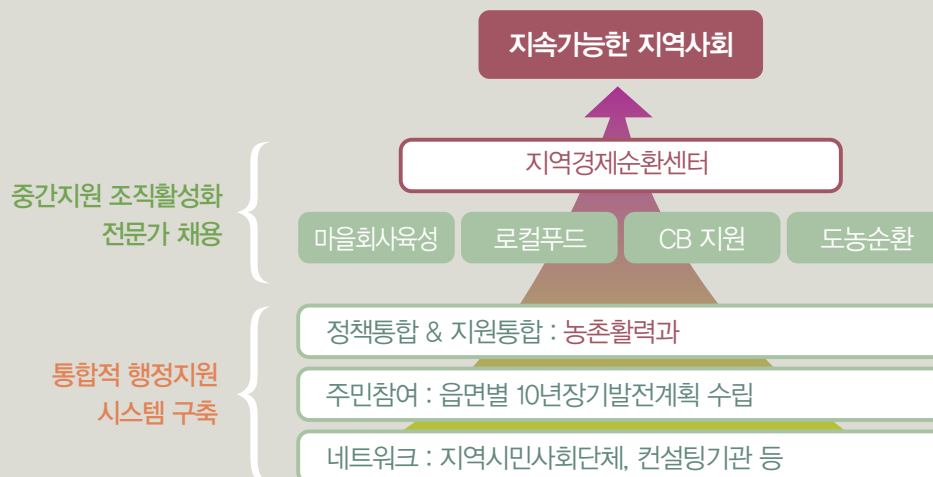
- 지역소농, 고령농 3,000농가의 월 150만원 소득보장
- 얼굴있는 먹거리 생산과 관계형 시장 직거래 유통

### ● 도농순환촉진

- 지역을 함께 만들 인적자원 유치, 도시-농촌간 교류
-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정책통합&지원통합 중간지원조직 도입





## 차별화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세우다



폐교된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 만든  
지역경제순환센터(2010. 6월 개관)

완주군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인구 9만명의 작은 도농복합도시다. 지리적으로는 인근 65만 전주시에 배후도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였다.

우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회사 100개소 육성’, ‘전면적인 로컬푸드 실현’, ‘도농간 순환’,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 촉진’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웠다. 마을회사 정책은 20년 뒤에도 유지되는 도농교류형 거점마을을 육성하는 것이다.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의 3,000여 소농과 인근 65만 전주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도농순환사업은 과소화 고령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에 도시의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이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모델과 주민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정책과 지원을 통합하였다. 2010년 7월 군청에 별도의 농촌활력과를 신설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회사육성, 로컬푸드, 도농순환, 사회연대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었다.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했다. 2010년 6월 폐교인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만들고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등 민간조직이 입주하여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한국모델 제 1호다.

## 지역농업 투 트랙 조직화 전략



## 생산 재편, 소농 조직화

다품목 소량생산체계 :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중심

### 농촌노인 두레농장(10개소)

- 생산적 노인복지 시책
- 농촌노인 소득, 건강, 일자리
- 개소당 2억원(군 자체 사업)
- 공동생산시설, 공동식당

### 마을공동체회사 (105개소)

- 마을 6차산업화 단계적 육성
- 육성단계별 지원(군 자체)
- 파워빌리지(22개소)
- 농어촌 공동체회사(2개소)

### 작목반 (120개 1,500농가)

- 영세 고령농 조직화
- 소규모 하우스 : 연100개
- 친환경자재 지원 : 750ha
- 토종종자 발굴육성 등

소비자 밥상에 다양한 지역산 먹거리를 공급 : 공동체 중심 조직

## 정책 슬로건, '월 150만원 버는 월급받는 농부 3,000소농 만들기'

완주군 총 농가 9,700여 농가 중 1ha 미만농가는 6,200농가(72.8%)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이 36.5%에 달한다. 이들 중 68%가 자가소비로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어 완주군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영세 고령농의 생산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로컬푸드를 통해 이른바 '관계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전체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해 내자는 것이다. 로컬푸드 통합추진 전략에는 정책대상과 목표, 생산·유통·소비 등의 정책수단, 추진조직 육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조례 제정도 포함되었다.

| 구분       | 정책명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정책<br>목표 | 대상        | •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br>- 0.5ha미만 농가 3,412농가(1차) | - 장기적으로 1ha미만농가 참여<br>- 상업농과 초기단계 분리대응 |
|          | 목표        | • 월 소득 1백50만원 보장<br>(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 분)        | - 1단계 3,000가구                          |
| 정책<br>수단 | 기획<br>생산  | • 다품목소량생산, 농민가공                              | - 조직화 :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
|          | 관계<br>시장  | • 직판장, 꾸러미, 공공급식 등<br>• 농가레스토랑/ 음식점          | - 직판장 중심 (6차 산업화 지향)                   |
|          | 물류<br>시스템 |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 - 생산·유통·소비 통합컨트롤타워                     |
| 조직<br>육성 | 민간        | • 공공형 운영조직                                   | -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단법인 등                    |
|          | 관(행정)     |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담당                             | - 2010. 7 농촌활력과 신설                     |
| 제도<br>정비 | 조례<br>제정  | •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조례 외<br>• 완주군 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 - '3년 현재 총 5개 조례제정                     |

## 종합 밑그림을 그리다

### 생산재편, 소농 조직화

성패의 열쇠, 로컬푸드 배후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다

그간 한국의 농업생산구조가 대규모·단작화로 구조조정되어 왔으므로, 지역농업의 일정 영역을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체계로 재편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다.

#### 고령농, 할머니 작목반을 조직하다

지역소농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기획생산팀이 1년이 넘는 시간을 매일 저녁 마을사랑방 좌담회를 조직, 재배가능 면적, 품목, 재배 및 출하방법을 교육하고 토론하였다. 조직화는 주로 자가 소비 또는 농업소득이 없는 고령농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로컬푸드 작목회는 총 1,50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얼굴있는 먹거리 생산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 마을 및 지역공동체 단위 공동생산을 장려하다

가족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지역농업 상황에서 공동체사업에 의한 생산량의 규모화는 지역농업 조직화의 기본 전략이 된다. 안정적인 물량의 확보 측면과 품질의 균일화 측면에서도 공동체를 기반한 생산조직화는 필수다. 우선 두레농장과 연계다. 두레농장은 농촌노인 일자리창출과 소득안정, 공동식사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된 완주군 고유의 생산적 노인복지시책으로 현재 10개소가 운영중이다. 다음은 완주군이 육성중인 104개의 마을사업 중 슬로푸드(장류 등 발효음식) 및 신선식품(두부, 콩나물, 유정란 등) 생산마을과의 연계다.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 로컬푸드 생산거점 조직화 유형(공동체 활성화 분야)

| 사업명      | 사업특성              | 사업량 | 생산품목          |
|----------|-------------------|-----|---------------|
| 두레농장     | 농촌노인의 생산적 복지      | 10  | 유정란, 딸기, 채소 등 |
| 파워빌리지    | 마을단위 농업 6차산업화     | 17  | 된장, 청국장, 절임류  |
| 참살기마을    | 초기 단계 공동협업        | 40  | 장류, 두부류 등     |
| 맛있는 마을   | 전통식품 발굴, 사업화      | 20  | 밀반찬 류         |
| 커뮤니티비즈니스 | 주민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 2   | 떡가공상품, 제빵제과   |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사업           | 1   | 두부, 밀반찬       |
| 자활센터     | 일자리 통한 자활 유도      | 1   | 참기름, 들기름 등    |

## 농민가공 활성화

로컬푸드 상품다각화 및 부가가치 증진 위해 농민가공 활성화에 나서다

한국의 가공사업은 농민들이 배제되는 가운데 이른바 식품산업자본에 의해서 주도 되어 왔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가 농민에게 환원되지 못했다. 따라서 농민가공, 즉 지역산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로컬푸드 소비자의 다양한 밥상품목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제조 기술교육, 인허가 문제, 안정된 판로가 농민가공 활성화의 핵심과제다.

### 마을단위 공동가공 촉진

년부터 추진해 온 마을회사 육성사업의 결과로 다양한 마을단위 가공상품이 직매장 등으로 출시되어 마을공동체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직판장이 활성화하면서 두부 만드는 마을만도 7개소에 이른다. 안덕의 죽염된장, 비봉 평치두레농장의 콩물 등 주민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신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가공 식품에 대한 안전성, 위생 등 주민들의 이해수준이 높지 못하므로 기술수준 제고, 제조허가 획득, 안전성에 대한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해가야 한다.

###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 운영

직매장, 꾸러미 등 ‘관계시장’ 품목다양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농가환원을 목적으로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군에서 15억9천만원을 투입, 공장 495㎡, 폐수배출시설 48.36㎡규모로 2012년 완공했고, 밀반찬가공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위생실, 전처리실, 포장실, 조리실습실 등을 갖췄다. 협동조합 등 주민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행정은 이를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가공창업 아카데미는 가공을 희망하는 공동체를 모집,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시제품 생산, 테스트마케팅을 통해 가공제품 출하기반을 돕는 것으로 총 2기, 24개 공동체



## 다품목연중생산공급체계 구축 : 로컬푸드 인증제도(농기센터 내 전담팀)



## 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체계





112명이 정규과정을 수료했다.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농촌디자인센터에서 지원한다. 직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안전성 강화시스템

군 자체 인증제도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다

완주군은 중층적인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각 직매장에서 진행하는 57개 항목에 대한 간이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출하 전 반드시 샘플을 제출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는 로컬푸드 인증전담부서(2012년 신설)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직매장에서 품목을 무작위로 추출해 246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성관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회시 출하정지 1개월, 2회시 출하정지 3개월, 3회시 영구 퇴출된다.

중기과제로 지난해 8월부터 군 단위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다. 별도의 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신청농가에 대해 농약성분검사 246종, 농업용 수질검사 6종, 토양검사 7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안전성 기준은 저농약(무제초제) 기준에서 출발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밥상, 새로운 상생관계가 만들어지다

로컬푸드 거점직매장은 현재 4개소가 운영중이다. 직매장은 소비자 생활권인 전주 시와 완주군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역농협 운영모델이 1개소,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이 3개소다. 용진농협 직매장은 지난 2012. 4. 27일, 효자점은 2012. 10. 20일, 모악산점은 2013. 7. 27일, 하가점은 2014. 1. 29일 각각 문을 열었다. 용진직매장은 용진농협협동조합이 운영관리 주체이고 용진면의 농협 조합원을 기본 동력으로 한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완주군 농민과 직원이 출자하여 만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사업초기 공공성 담보를 위해 완주군과 지역의 10개 농축협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제3섹터형 농업회사법인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 농가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협동조합으로 전환됐다. 13개 읍면에 분포해 있는 소농과 고령농을 조직화하고 직매장으로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 소포장하여 매일 아침 진열한다. 이용료 10%를 제외한 90%는 농가에 환원되므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두레농장, 마을공동체, 주민기업,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1차 농산물 및 가공품을 연계 판매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원거리에 위치하고 별도의 운송 수단이 없는 농가는 선별적으로 순회수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 관계시장 : 밥상 꾸러미



멀어진 식과 농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밥상을 공급할 목적으로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사업 기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모델 : 주 1회 소비자 가구에 제철먹거리를 꾸러미로 보내는 사업
- 사업시점 : 2010. 10월-계속(2010. 10월 140여명으로 시작)
- 운영방식 : 1년(48주) 공급계획 수립 후 제철농식품 100여가지 택배 시스템  
유정란, 두부, 콩나물/ 채소/ 과일 등 제철먹거리 11품목
- 조 직 : 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밥상'

◎ 관계시장 : 상설 직판장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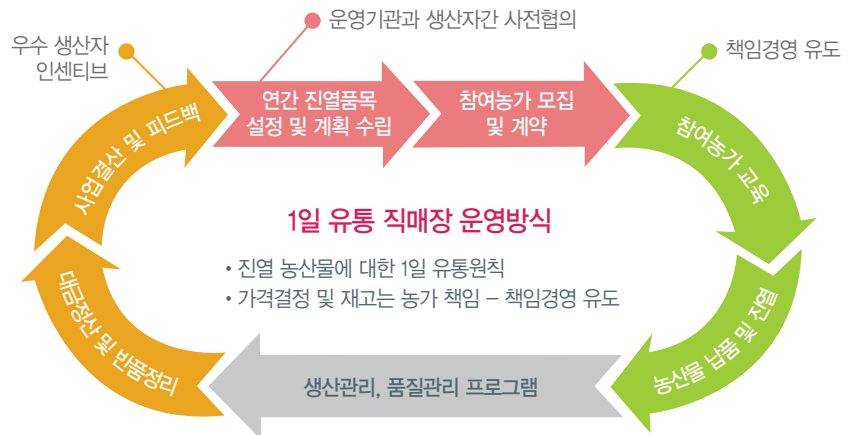
- 완주 로컬푸드 1일 유통체계형 상설 직매장 모델 창출
- 고령농, 중소농, 영세농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농가소득 안정
- 기존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유통체계 개선, 생산자-소비자 상생협력 도모

사업개요

- 사업모델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지역먹거리를 나누는 상설판매장 (3개소)
- 시 설 : 완주군-전주시 상생형 1일 유통직매장
- 성 과 : 1일 평균매출 2000만원, 1일 방문객(1천명)
- 전국 제1호 로컬푸드 직매장 : 완주 용진농협 직매장 (2012.4.27개장)

운영방식

- 납품을 희망 농가 사전교육 이수 원칙 :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교육과정은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생산방식 전환, 직매장 납품요령,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
- 농가 소포장 및 진열 : 농가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스스로 소포장을 하여 매장에 직접 납품, 진열. 농가 스스로가격 결정(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가격정보 제공)
- 판매현황 농가 확인 : 매대별 판매현황 실시간 영상으로 생산농가에 휴대전화로 전달



철저한 기획생산 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주체와 프로그램

### ◎ 관계시장 :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직매장+농가레스토랑+농촌체험 결합

직매장과 레스토랑, 가공센터, 농촌체험이 결합된 전라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 모델이다. 직매장에서는 완주지역 500여 소농, 고령농이 당일 수확한 채소와 제철과일, 장류 등 300여종의 농산물과 가공품이 판매된다.

#### 사업개요

- 공공성 : 건물 및 시설은 지자체 소유 (공공성)/ 40억원
- 시 설 :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가공센터, 농촌체험 등
- 참 여 : 완주군 중소농 400농가
- 운 영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 ◎ 관계시장 : 공공급식 조달

로컬푸드 통합컨트롤센터(수집 & 분산) 2단계 이하 유통 원칙

#### 사업개요

- 사업장 : 창고 리모델링 1,980㎡ / 3,300백만원/ 지자체 소유(공공성)
- 시 설 : 순회수집시스템, 신선편이 전처리시설, 저장 및 가공시설, 콜드체인
- 운 영 : 지자체 출연형 (재)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 2013. 6
- 역 할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시장 개척, 직매장 연계

로컬푸드 통합 컨트롤 타워





## 생산과 소비간 쌍방 소통

특히 생산과 소비간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들로 구성된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매주 토·일요일에는 농촌으로 떠나는 체험 버스를 운행한다. 완주군 농촌 공동체를 순회하며, 수확체험, 가공체험, 음식만들기, 농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직거래 매장의 안착을 바탕으로 농식품-음식-체험이 결합된 복합교류공간 개념인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농업과 밥상을 함께 살리는 행복 정거장'이다. 얼굴 있는 먹거리 뿐 아니라 슬로푸드 밥상 문화, 농촌정보발신, 마을 여행버스운행 등을 통해 멀어진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좁히는 농도 상생형 협동 경제, 농식품 6차산업화 모델로 확장해가고 있다.



##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순환경제가 커지다

### 월급 받는 소농 1,000농가가 생겨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잡고 만드는 로컬푸드 상생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 농촌의 소농, 고령농의 안정된 소득, 일자리, 생산자의 자긍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상설 직판장은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중 가장 큰 순환경제 효과를 낳는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품목과 작부체계를 전환함으로써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고(이른바 '월급 받는 농부'), 소비자의 경우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로컬푸드 구입이 가능해지므로 만족도가 크다. 소농들의 참여가 늘면서 그동안 버려졌거나 방치되었던 지역의 농지활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생산적 복지시책의 핵심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거점별 직매장 수 확대의 근거는 '월급 150만원 받는 농부 3,000농가 육성'이라는 슬로건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예측 불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로컬푸드가 농촌복지죠”

[illegible]

전환경제때 농산물, 식재장에 하루2회 내와  
단골도 생기 수업 급증...농장 보는 재미 쏠쏠

[illegible]

수준의 고, 낮에 따라서는 낮이 밝은 쪽  
거의 모든 자연자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한층 높은 차등이 있다"고  
한편에 밝혔다(이하, 계속). 특히  
한층 높은 차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는 환경수업이 많은 쪽이  
스스로 노력하고 배운다고  
그러나 낮은 차등으로, 예를 들어  
한층 높은 차등이 있는 쪽은  
환경수업이 많은 쪽은 그렇지  
않다. 이 차등은 매우 큰 차등이  
있을 때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환경수업이 많은 쪽은 높은 수준  
의 차등이 있는 쪽에 비해 낮은  
수준의 차등이 있는 쪽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한



한두군 동심원 전자발射器의 원리제, 이차원, 이차원(전체부)의 알라니가 제정해 내를을 성을을 보정하다가 보정무도 수입이 적은 동점을 들여보이며 참여모음을 짓고 있다

## “겨우내 통장 찍어본 재미로 살았제”

동양 산골에는  
호젓푸드 매장을 연으로  
끈끈한 우대를 자랑하는  
세 할머니가 산다

동상 원자본가들에게 사는 여덟백33, 원대(17), 이소(173)합계는 '보통'의 3배가 된다. 같은 마을에 사는 세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일주일에 몇번이든 문을 연 뒤부터 보일주머니에 4배씩 있다.

이길래, 원덕래, 이조왕 할머니  
갖가지 산나물, 푸성귀 소포장

원래에 내 시간까지 봐 주지 않아서, 약간 짜임은 게 아니었지"고 말했다.

[illegible]

다. 부자라면 언니들이 나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언니들은 코앞부터 호자같이 생겼기 때문에 세로 코앞부터 호자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언니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언니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작업장이 생기기 전에는 봉건을 사냥하던 곳  
반쯤에 내다 보였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냥에  
감기된 봉건에게, 역전에 오고 가자 자바나  
나온다"와 "보통무드가 생긴 뒤부터는 잘  
보통에서 가져가면 봉건으로 돌아와서  
전통 봉건"과 출가한다.

새 알바는 봉건 산맥에 있다. 보편무드 표지  
판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봉건 봉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활력이 높아지다

마을회사, 두레농장, CB공동체 등 지역활력 사업을 로컬푸드와 수평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공동체 성장과 마을자립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교류, 소통 통로가 생겨나면서 지역공동체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이다. 두부 만드는 마을만도 7곳이다. 장애인,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마더쿠키’는 직매장에 납품하면서 매출이 10배로 늘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빵 기술을 배워서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농촌여성들이 슬로푸드 가공협동조합을 만들어 농민가공품을 직매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농촌노인 두레농장과 마을기업도 안정된 판로가 개척되면서 한층 활기를 더하고 있다. 두레농장을 중심으로 토종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자가 채종 방식에 의한 마을육묘, 소규모 순환농업퇴비장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농업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태도가 달라지다

로컬푸드 거점매장이 들어서면서 소비자의 먹거리 구매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매  
장당 1일 평균 1,000여명이 넘는 소비자가 찾는다. 이유는 세 가지, 즉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성립된다’, ‘국  
내산을 넘어 지역산을 넘어 생산농가를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소비자의 로컬푸  
드에 대한 신뢰는 주말 농촌여행버스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의 '가치' 달라졌다

그동안 한국에서 글로벌푸드 피해를 지역에서부터 근절시키는 실사구시 전략으로 로컬푸드가 주목받아왔지만, 이를 지역농정혁신을 통해 현실에서 증명해보인 곳은 완주군이 유일하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의 벤치마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가치’ 지역브랜드로 내건 전략이 적중했다. ‘대한민국 농촌수도’, ‘로컬푸드 1번지’란 슬로건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완주군  
WANJUGUN

565-811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Tel. 063-290-2464 Fax. 063-290-0000 [www.wanju.go.kr](http://www.wanju.go.kr)